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8차 신학포럼

- 발표 -

이영찬 박사 · 최광희 박사 · 박동진 박사

- ❖ 일시 : 2021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 ❖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4층 설교센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KOREAN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목 차

·알리는 말씀 ----- 5

·발표1: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분석 :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 이영찬 박사 ----- 7

·발표2: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에 관한 연구"

◆ 최광희 박사 ----- 24

·발표3: 마틴로이드 존스의 성령세례 이해와 진정한 설교
(True Preaching)에 관한 연구

◆ 박동진 박사 ----- 46

● 알리는 말씀

1.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제8차 신학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발표와 진행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포럼이 끝난 후 중식이 제공되오니,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본 학회는 실천신학자들과 현장목회자들의 지혜를 모아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정립과 실천신학적 원리탐구 및 구체적 방법론을 교회와 사회현장에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창간한 「복음과 실천신학」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지로 선정되었고 매년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하며, 2020년 기준(21년 통계 발표), KCI 영향력 지수가 기독교 신학 분야 전체 학술지 중,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 「복음과 실천신학」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복실 홈페이지(<http://kept1997.kr>)에서 논문검색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온라인을 통한 논문 검색과 논문 투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1회 정기학술대회가 2021년 11월 27일(토) 분당 만나교회(담임: 김병삼 목사)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 활성화”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1]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분석 :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¹⁾



이영찬 박사 (한국침례교신학대학교/ Ph. D.)

I. 들어가는 글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를 지나오면서 부흥의 절정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 증가 수는 1990년대 초부터 멈추었고, 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점차 감소 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²⁾ 이러한 상황은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 하지만 더욱 큰 위기는 ‘강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위기의 진단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⁴⁾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낮설지도 않다. 이런 맥락에서 배덕만은 “한국교회 설교에 대한 비판은 그 한계점을 넘어섰지만 설교의 변화 조짐은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설교의 갱신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과제”⁵⁾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교회 위기가 오래전부터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인 케리그마적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⁶⁾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Ph.D.)논문,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케리그마(κρίσμα)특성과 현대설교의 적용: 사도행전 2장과 13장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의 제2장, 제3장, 제6장 제1절을 요약 및 발전하여 투고한다.

2) 최윤식·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51-2.

3) 한국교회의 위기는 첫째, 영적인 부분이다.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물질적 번영이 배금주의로 변질하였다. 둘째, 윤리와 도덕적인 면이다. 교회와 목사들의 각종 분쟁과 비리, 비도덕적인 형태, 세습과 같은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못한 윤리와 도덕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학적인 부분이다. 비성경적인 목회형태가 만연하여 바른 교회관과 목회철학의 부재이다. 양현표, “교회의 원형으로서 작은 교회의 회복: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51 (2020): 115-16.

4) 김형원 외 4인,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 대장간, 2015), 89.

5) 배덕만 외 4인,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4.

6) 케리그마와 케리그마적 메시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심 자체를 말하고, 케리그마적 메시지는 케리그마에 기초하여 선포되는 메시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는 초대교회 1세기 상황에서 선포되었으나, 멀티미디어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증거되어야 한다. 케리그마가 현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설교 원리와 적용의 틀이 요청된다.⁷⁾ 현대 강단에서 소외된 케리그마 설교를 회복시키는 길은 설교자의 내적 정체성 회복과 더불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현하여 증거 하기 위한 헌신이 요청된다. 이때 비로소 케리그마는 복음의 생명력과 함께 강단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소외된 케리그마를 회복시킴으로써 이 시대의 청중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⁸⁾

본 연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에 국한하여 진행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설교들의 시작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케리그마와 유앙겔리온, 그리고 디다케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베드로 케리그마 설교를 분석하여 그 원리와 틀을 현대설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사도행전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사도들을 통해 로마인과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보여준다. 특히 베드

지로서 ‘케리그마’와 ‘유앙겔리온’ 그리고 ‘디다케’라고 본다. 이 사실에 대해 문상기는 “케리그마는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내용을 선포하는 메시지이다. 케리그마적 메시지는 원 복음인 케리그마를 해석과정을 거쳐 재상황하여 현대에 적용함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케리그마적 메시지 안에 케리그마, 유앙겔리온, 디다케가 내포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06), 38-53./ 특히, 사도행전에서 디다케는 “사도의 가르침”(행 2:42), “예수의 가르침”(행 13:12), “새 교훈”(행 17:19) 등으로 표현하는데, 신학에서의 디다케는 회개와 믿음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케리그마적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운백, “복음 선포와 교육과의 관계 연구”, 『복음과 실천』 15 (1992): 31.

7) 문상기는 케리그마의 특성과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과 원리는 케리그마로부터 유래된 개념 안에서 발견된다. 신약성경의 특징은 사도들의 케리그마 선포에서 두드러진다. 사도들은 예수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 모두가 케리그마를 형성한다.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이 선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학적 과제”,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7 (2004): 207-08.

8) 이영찬,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케리그마(κήρυγμα)특성과 현대설교의 적용: 사도행전 2장과 13장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2.

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케리그마를 선포했다.⁹⁾

이승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케리그마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설교자들에게 여전히 성경적인 설교를 결정하는 시금석”¹⁰⁾이라고 강조한다. 즉 사도행전 베드로의 케리그마는 현대 설교자들에게 성경적인 설교를 선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적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베드로의 케리그마적 설교 분석(행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적 메시지의 세 요소는 케리그마, 유앙겔리온, 디다케이다.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시킨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유앙겔리온은 선포자가 케리그마에 신학적 석의를 부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디다케는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케리그마적 메시지 중에서 선포의 세 요소는 하나의 중심 사상을 드러내는 세 가지 선포 형태(mode)를 가리킨다.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 본문 중심으로 설교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청중에게 적용하며 선포했다. 따라서 케리그마적 메시지는 형식에 있어서 본문 중심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중심이며, 적용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다.¹²⁾ 베드로의 케리그마적 메시지 형태인 세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분석해 본다.

9) 성종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사적 설교 연구”, 『기념논문집』 30 (2006): 428-29.

10) 이승진은 “사도행전에 실린 사도들의 설교가 청중의 회심이나 성화를 촉구했다면 이러한 설교의 목표는 그대로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렇게 신약성경이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는 그 자체가 완벽한 재현 가능한 설교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행력을 발휘할 설교학적인 특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를 추구하는 현대설교자들에게는 여전히 규범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승진,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발견되는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인 함의”, 『신학정론』 36 (2018): 463-64.

11)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26-39.

12) 문상기는 설교의 용어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설교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설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설교를 지칭하는 용어들 가운데 중요한 세 개의 단어는 케리그마, 유앙겔리온, 디다케”라고 주장한다.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48-53.

1) 케리그마 메시지 분석(행 2:14-32)

사도행전 2장 1-13절에서 성령강림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4-32절에서 케리그마 메시지를 선포한다. C. H. Dodd는 케리그마 설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사도적 설교 핵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했다.¹³⁾ 이 의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기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William H. Willmon는 다드의 논리 근거로 케리그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들을 동일하게 개요할 수는 없겠지만, 다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케리그마 선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첫째, 때가 왔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행 2:16-21). 둘째, 이 천국의 도래는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행 2:22-23). 셋째,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의 메시야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다(행 2:24-36). 넷째, 교회에 임하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와 영광의 표징이다(행 2:33). 다섯째, 메시아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곧 그 완성에 달할 것이다. 여섯째, 용서와 성령과 구원은 회개로써 얻게 된다(행 2:38-39).¹⁴⁾

Willmon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천국 도래는 예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김경진은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 설교에 대해 “첫째, 사건의 설명(행 2:14-21)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언의 성취를 선포했다. 둘째, 케리그마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행 2:22-36)에 관해 선포했다”¹⁵⁾고 강조한다. 베드로는 케리그마 내용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선포했다.

(1) 예수의 죽음

베드로는 청중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복음의 원형이자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설교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행 2:23).”¹⁶⁾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13) C. H. Dodd,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채위 역,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7), 21-7./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75-6.

14) William H. Willmon, *Acts Interpretation*, 박선규 역,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69.

15) 김경진,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95.

16) 한국찬송가공회, 『굿모닝 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5), 189.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의 원형적 복음으로써 예수의 가장 핵심적 구원사역이다.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의 죽음은 고통이 수반된다. 즉 통증을 수반하는 아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약의 약속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이다.¹⁷⁾ 이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논증하였다.

(2) 예수의 부활

베드로는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4).”¹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다. 즉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케리그마의 핵심이다.¹⁹⁾ 이런 맥락에서 Charles R. Swindoll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예수 부활의 근거에 대해 시편 16편 8-11절을 인용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노래한 시인데 이 소망은 무덤에서 썩지 않으실 ‘주의 거룩한 자’(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한 칭호)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의 근거를 메시아의 부활에 두었다(행 2:29).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성령강림 사건에 참여하였던 120명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행 1:8).²⁰⁾

이렇듯 베드로가 청중에게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케리그마 메시지이다.

2) 유앙겔리온 메시지 분석(행 2:33-36)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음에 대하여 증거한 후, 오순절 사건의 주체인 성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부활한 예수와 성령의 관계로 주제를 바꾼다(행 2:33).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술 취함으로 오해한 사람들에게 해명하기 위해 설명한 구절이다.²¹⁾

17) Raymond E. Brown, *Anchor Bible : The Death of Messiah 2*, 류호성·박민선 역, 『메시아의 죽음 II』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1670-80.

18) 한국찬송가공회, 『굿모닝 성경』, 189.

19) 유상섭, “베드로의 설교 분석”, 『신학지남』 66 (1999): 235.

20) Charles R Swindoll, *Swindoll's New Testament Insights on Acts*, 윤종석 역, 『사도행전』 (서울: 디모데, 2017), 70.

21) 유상현,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194-95.

이 사실에 대해 김정훈은 “오순절에 모인 청중이 술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그때가 아침 시간이었음을 지적한다. 이는 오순절 날에 체험한 초자연적 현상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이다”²²⁾라고 강조했다. 베드로는 성령충만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며 그 사건에 대해 청중이 목격했던 사건을 증인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²³⁾

유상현은 구약성경 요엘을 인용한 목적에 대해 “오순절 사건의 일반 상황 즉 방언 및 기적과 사람들의 경이적 반응 등을 포함한 전체 모습들을 요엘이 예언한 근거로 설명하는 요점은 이 현상이 바로 성령강림에 수반되는 기적의 현현이라는 해석인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⁴⁾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지금 벌어진 일련의 이 현상들은 성령의 영이 부어지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에 목격된 이 기이한 현상들의 사건은 요엘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들이 성취된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음을 선포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우심을 받은 것 즉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승천에 대해 언급한다.²⁵⁾ 이런 맥락에서 정창균은 “본문 가운데 부활 관련 구약성경의 인용 본문인 시편 110편은 기독교적 부활의 의미와 예수의 승천을 해석하는 도구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²⁶⁾고 피력한다.

이에 대해 John Stott는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메시아의 승천에 적용한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활에 의해 썩지 않게 보존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행 2:23) 때문이다”²⁷⁾라고 강조한다.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며 주장하는 목적은 예수의 승천을 강조하기 위함이다.²⁸⁾ 특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성령을 부어 주심(행 2:33)”에 대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점진적으로 승천시켰음을 말한다. 즉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다시 영광스럽게 이동함을 의미한다(빌 2:9-11).²⁹⁾ 베드로는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청중들에게

22) 김정훈, 『사도들의 설교와 신학』 (서울: 그리스심, 2003), 109.

23) I Howard. Marshall and Mark A Seifrid,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Acts-Romans*, 김현광·배성진 역, 『사도행전·로마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10.

24) 유상현,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 174-75.

25) 김정훈, 『사도들의 설교와 신학』, 113.

26) 정창균, “사도행전에서의 부활 관련 인용”,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19 (2012): 1150.

27) John Stott, *The Message of Acts : To the Ends of the Earth*, 정옥배 역 『사도행전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8003.

28) F. F. Bruce,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the Acts*, 김장복 역, 『사도행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96.

해석하며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지련은 부활의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신약성경에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심에 대한 선포이다. 즉 신약성경 선포의 핵심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교회를 탄생시킨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토대요 대상이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요 토대이며, 또한 해석학적 열쇠다.³⁰⁾

정창교는 구약성경 인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5-28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에서 언급되는 시편 16편은 예수의 부활과 구약성경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명확한 본문”³¹⁾이라고 강조한다. 베드로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해석함을 통해 선포했다. 따라서 본문의 해석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유앙겔리온 메시지라고 이해한다. 즉 유앙겔리온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원 복음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3) 디다케 메시지(행 2:37-41)

베드로는 구약성경을 인용 해석하며 구체적으로 오순절 사건에 대하여 입증하였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청중이 마음이 찢렸다”고 한다. 베드로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메시아시며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을 것과 자신들이 회개한 사실에 대해 침(세)례를 받으라고 청중에게 권면한다(행 2:38).³²⁾ 이 권면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디다케의 역할과 기능이다. 디다케는 적용 부분으로써 청중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주님으로 인정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설교의 마지막 단계인 적용 부분이다.

김창규는 디다케는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디다케는 교훈

29) Marshall은 “베드로가 메시아로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대해 구약성경으로 입증 한 후 이제 성령에 대해 선포한다. 부활은 예수의 승천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부활은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승천 사건이었다. 그 분이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예수의 승천으로 인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I. Howard. Marshall,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Acts*, 왕인성 역, 『사도행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27.

30) 정지련, “부활 케리그마 형성과정을 통해 본 부활 신앙의 실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233-34.

31) 정창교, 『하나님 중심적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서울: 쿤란출판사, 2016), 62-5.

32) Eckhard J. Schnabel,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Acts*, 정현 역, 『사도행전』 (서울: 디모데, 2018), 166.

을 의미하는 말로써 신약의 95회의 용례 중에 3분의 2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다. 디다케는 설교에서 선포의 일부이다.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같은 맥락에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³³⁾”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다케를 설교로써 선포되는 메시지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다.

또한 박영철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설교’라는 단어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했으며, 설교와 가르침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³⁴⁾고 강조했다. 즉 디다케를 설교와 동일한 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Robert H. Mounce도 “디다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말씀이며 구체적인 강해”³⁵⁾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디다케는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다케는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며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가르침이며, 그 자체가 복음 전파의 방도가 되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가르침의 방도와 케리그마에 기초한 교훈적인 요소를 가미한 디다케 메시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을 요청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³⁶⁾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때 베드로가 청중에게 “회개하고 침(세)례 받고 죄 용서함 받아 성령을 받으라(2:38)”라고 권면하였다.³⁷⁾ 이처럼 청중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권면하는 부분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적용 단계이다. Eckhard J. Schnabel은 “회개하라는 권면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음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³⁸⁾ 이 메시지는 죄와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모든 죄가 침(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청중에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행 2:40)”³⁹⁾라고 선포했다. 베드로의 설교 목적은 ‘구원을 받으라’는 강력한 권면이다.⁴⁰⁾ 이 권면을 통해 가장 절정인 장면이 나온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33) 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 방법론』 (서울: 쿤란출판사, 1992), 20-3.

34) 박영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육적 접근”, 『복음과 실천』 11 (1988): 172-23.

35) Robert H. Mounce, *The Essential Nature of New Testament Preaching* (Grand Rapids: Eerdmans, 1960), 42.

36) 한국찬송가공회, 『굿모닝 성경』, 190.

37) Ajith Fernando,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채천석 역, 『사도행전』 (서울: 솔로몬, 2011), 122.

38) Schnabel, 『사도행전』, 169.

39) 한국찬송가공회, 『굿모닝 성경』, 190.

40) 이달,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69.

하더라(행 2:41).”⁴¹⁾ 이 말씀은 디다케 메시지의 결과이며 열매이다. 이 역사적 장면은 현대설교가 오늘날 지향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필자는 설교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청중에게 권면하는 적용단계를 디다케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 형태의 세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선언, 그리스도와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 그리고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윤리적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²⁾ 이런 맥락에서 문상기는 케리그마적 메시지를 세 요소 형태라고 강조했다.⁴³⁾ 이 사실에 대해 Stott는 세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신약에 나타난 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역사적이시며, 신학적이시고, 현대적이시다. 사도들은 예수에 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적 사건으로써(그들 자신의 눈으로 목격함),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성경에 의해 해석됨) 그리고 현대적 메시지으로써(사람들에게 결단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하면서)말이다.⁴⁴⁾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적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케리그마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인 원 복음이다. 둘째, 유앙겔리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복음을 해석하여 선포하였듯이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이다. 셋째, 디다케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청중에게 권면하는 적용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원리와 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현대교회에 적용을 제시해 본

41) Fernando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청중이 디다케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 예수께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침(세)례에 참여하기를 작정한다. 그 결과 회심하고 침(세)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삼천 명이다. 삼천 명이라는 청중은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메시아 요 주로 믿게 된 유대인의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Fernando, 『사도행전』, 175.

42) Lucy Atkinson Rose, *Sharing The Word: Preaching in The Roundtable Church*,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91.

43) 문상기는 세 요소에 대해서 “첫째, 케리그마는 설교자에 의해 선포되는 복음적 설교를 의미한다. 둘째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의미하면서 나아가 설교의 본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디다케는 가르침이란 일차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설교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르침의 형태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피력했다. 문상기, “신약성경 설교로서의 케리그마와 그 신학적 관점”, 『복음과 실천』 24 (1999): 118-26.

44) Stott, 『사도행전 강해』, 115.

다.

2. 한국교회 강단의 적용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강해설교의 중요한 틀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강해설교자 Haddon W. Robinson는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⁴⁵⁾고 주장했다. 즉 강해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재해석하고 청중에게 적용하는 설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성경 전체 계시와 관련하여 본문을 주해 및 해석한 후, 해석된 진리를 조직하여 삶에 적용해야 한다.⁴⁶⁾ 이런 맥락에서 Walter L. Liefeld는 “청중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이 없다면 그 강해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만다. 강해가 설명이라면 강해설교는 해석된 본문을 현대 청중의 삶에 필요하며 적용 시키는 것이다”⁴⁷⁾라고 피력했다.

John A. Broadus는 “강해설교란 본문 중심으로 강해에 치중하는 설교이다. 강해설교는 설교의 대지를 본문에서 끌어내야 한다. 즉 설교의 모든 내용이 본문에서 나오는 설교”⁴⁸⁾라고 강조했다. 강해설교의 첫 시작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해설교는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주제나 대지를 본문 안에서 끄집어내야 하며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고 본문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 강해설교의 시발점은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케리그마 설교 원리를 현대 강해설교에 적용하기 위해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적 메시지의 원리와 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현대설교에 적용시켜 본다.

1)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⁴⁹⁾ 예수 그리스도는

45) Haddon W. Robinson, *Bible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 정장복 역,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6.

46) 박은규, “21세기 설교전략”,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1 (1997): 13-4.

47) Walter L. Liefeld, *New Testament Exposition*, 황창기 역,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8), 36.

48) John A. Broadus,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 Vemon L. Stanfield, Fourth Edition (New York an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58-9.

49) 문상기, “케리그마 설교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학적 과제”, 222.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광맥이기 때문이다.⁵⁰⁾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Bryan Chapell은 “성경 본문은 주제, 문학 장르, 목적 등에 관계없이 구속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⁵¹⁾고 주장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신구약의 주제가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⁵²⁾

Graeme Goldsworthy는 “모든 설교의 주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⁵³⁾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설교의 기본 출발점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⁵⁴⁾

이 사실에 대해 이광주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내용이 씨앗처럼 아주 적게 나타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는 완벽한 구속의 열매 형태로 설교해야 한다”⁵⁵⁾고 강조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케리그마 설교이다. 따라서 현대설교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문 중심으로 청중에게 선포해야 한다.

2) 본문에 충실한 강해설교

50) 류응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신학지남』 70 (2003): 278.

51)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엄성옥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출판사, 2016), 59-63.

52) Greg Heisler, *Spirit-Led Preaching*, 홍성철·오택용 역 『성령이 이끄는 설교』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8), 26.

53)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 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147.

54)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122.

55) 이광주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교훈과 도덕적 행위 이상을 선포하는 설교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설교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과 동기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기초를 두는 설교이다. 넷째, 인간의 타락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 설교이다. 다섯째, 은혜를 통하여 순종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설교이다. 여섯째,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교한다. 일곱째,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설교이다.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외침과 사도들의 사역과 예수 자신의 말씀도 성경의 궁극적인 구원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피력했다.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한국대학선교학회, 『대학과 선교』 5 (2003): 265-67.

본문에 충실한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에 토대를 두고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개요를 작성하고 본문을 해석하여 원저자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설교이다. 강해설교는 충실한 본문 해석과정을 통하여 청중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⁵⁶⁾

David Allen은 다음과 같이 본문에 근거한 해석에 대해 말한다. “모든 설교를 선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다.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단어나 문장 그리고 문단을 뛰어 넘어서야 전체적인 본문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⁵⁷⁾고 강조한다. 이는 철저한 본문 해석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현대설교가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강해설교이다.

같은 맥락에서 임도균은 “본문 중심설교와 강해 설교는 동의어라 할 수 있으며,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한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힘쓰는 설교”⁵⁸⁾라고 피력했다. 즉 본문에 충실한 강해설교는 원 말씀이 기록될 때의 저자의 의도에 충실한 설교이다. 또한 본문이 주체가 되어 설교자가 본문을 정확한 해석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성경원어의 분석과 석의를 바탕으로 한 설교이다.⁵⁹⁾ 이런 맥락에서 Martyn Lloyd-Jones는 “오늘의 교회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본문 중심 설교인 강해설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⁶⁰⁾

강해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초점에 두고 본문해석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문상기는 “강해설교는 해석된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개요를 만들고 적용을 꾀하는 설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등의 궁극적인 케리그마가 포함되어야 한다”⁶¹⁾고 피력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해석을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강해설교는 본문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전개 되어져야 한다. 즉 본문에 충실한 강해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를 찾아내고, 석의와 주해를 통해 해석과정을 거친 후 선포되는 메시지이다.

3) 본문에 근거한 적용

56) Sidney Greidanus,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2012), 36-7.

57) Daniel Akin, David, Allen, and Ned Mathews, *Text-Driven Preaching*, 김대혁·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설교』 (서울: 아가페, 2016), 165/ 김대혁, “본문성을 고려한 설교본문 선정에 대한 연구”, 49.

58) 임도균, “본문 중심 설교로 초대: 신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 침례교 설교로서의 적용”, 『복음과 실천』 56 (2015): 400-01.

59) David Akin, David Allen, and Ned Mathews, *Text-Driven Preaching*, 김대혁 역,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서울: 이든북스, 2012), 14.

60) Martyn, Lloyd-Jones, *Studi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문창수 역, 『산상 설교. 하』 (서울: 정정사, 1995), 3

61) 문상기,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52.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이 나타내는 중심 뜻을 해석하여 성경적 원리를 도출하여 설교자의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청중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Chapell은 적용의 역할에 대해 “진정한 강해설교는 설교의 모든 요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설교자가 설교의 각 요소를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⁶²⁾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본문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을 했다. 따라서 강해설교는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과정을 통해 청중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성경본문이 나타내는 중심 뜻을 해석하여 설교자의 삶에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 청중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Ⅲ. 나가는 글

현대교회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설교의 본질인 그리스도 중심 설교이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선포해야 할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과 성화를 이루게 하는 핵심을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이며, 신구약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을 벗어나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설교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 분석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케리그마 메시지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와 틀을 현대의 강해설교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 설교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케리그마적 메시지의 세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베드로의 설교가 케리그마적 메시지임을 논증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필자는 케리그마적 메시지를 세 요소로 분석하여 베드로의 케리그마 설교에 적용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세 요소는 케리그마 메시지, 유양겔리온 메시지 그리고 디다케 메시지이다. 케리그마적 메시지의 세 요소는 현대설교에서 선포되어야 할 오순절설교 형태로서, 본문에 내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실존적 실체가 되게 하는 선포 메시지이다. 본 연구자는 세 요소의 원리와 틀에 비추어 현대설교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적 강해설교 둘째, 본문에 충실한 강해설교 셋째, 본문에 근거한 적용을 청중에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선포한 케리그마 설교가 초대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듯이 현대설교에

62) Chapell, 『그리스도중심의 설교』, 113.

적합한 강해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 한국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 권성수. 『성령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김경진. 『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대혁. “본문성을 고려한 설교본문 선정에 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46 (2018): 34-61.
- 김정훈. 『사도들의 설교와 신학』. 서울: 그리심, 2003.
- 김창규. 『교회성장과 설교 방법론』. 서울: 쿤란출판사, 1992.
- 김형원 외 4인.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 대장간, 2015.
- 노윤백. “복음 선포와 교육과의 관계 연구”. 『복음과 실천』 15 (1992): 30-44.
- 류응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신학지남』 70 (2003): 276-303.
- 문상기. “신약성경 설교로서의 케리그마와 그 신학적 관점”. 침신논집. 『복음과 실천』 24 (1999): 112-51.
- _____. 『케리그마와 현대설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06.
- _____. “케리그마 설교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학적 과제”.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7 (2004): 207-28.
- 박영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교육적 접근”. 『복음과 실천』 11 (1988): 153-81.
- 박은규. “21세기 설교전략”.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1 (1997): 10-34.
- 성종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사적 설교 연구”. 『기념논문집』 30 (2006): 427-54.
- 양현표. “교회의 원형으로서 작은 교회의 회복: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51 (2020): 115-50.
- 유상섭. “베드로의 설교 분석”. 『신학지남』 66 (1999): 227-53.
- 유상현. 『베드로와 초기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한국대학선교학회. 『대학과 선교』 5 (2003): 252-85.
- 이달.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이승진.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발견되는 상호본문성과 설교학적인 함의”. 『신학정론』 36 (2018): 461-90.
- 이영찬.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케리그마(κήρυγμα)특성과 현대설교의 적

- 용: 사도행전 2장과 13장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 임도균. “본문 중심 설교로 초대: 신학적 고찰을 통한 한국 침례교 설교로서의 적용”. 『복음과 실천』 56 (2015): 395-419.
- 정지련. “부활 케리그마 형성과정을 통해 본 부활 신앙의 실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223-56.
- 정창교. 『하나님 중심적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서울: 쿰란출판사, 2016.
- 정창균. “사도행전에서의 부활 관련 인용”.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19 (2012): 1141-72.
- 최윤식·최현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한국찬송가공회. 『굿모닝 성경』. 서울: 아가페출판사, 2015.
- Akin, Daniel. et al. *Text-Driven Preaching*. 김대혁 역.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서울: 이든북스, 2012.
- _____. *Text-Driven Preaching*. 김대혁·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설교』. 서울: 아가페, 2016.
- Broadus, John A. *On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s*, Rev. Vernon L. Stanfield, Fourth Edition. New York an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 Brown, Raymond E. *Anchor Bible: The Death of Messiah 2*. 류호성·박민선 역. 『메시아의 죽음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Bruce, F. F.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The Acts*. 김장복 역. 『사도행전』.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엄성옥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서울: 은성출판사, 2016.
- Dodd, C. H.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채위 역.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서울: 한국 기독교문화원, 1987.
- Femando, Ajit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채천석 역. 『사도행전』. 서울: 솔로몬, 2011.
- Goldsworthy, Graeme.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김재영 역. 『성경 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0.
- Greidanus, Sidney.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김영철

- 역.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서울: 여수론, 2012.
- Heisler, Greg. *Spirit-Led Preaching*. 홍성철·오택용 역. 『성령이 이끄는 설교』.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8.
- Lloyd-Jones, Martyn. *Studi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문창수 역. 『산상 설교. 하』. 서울: 정정사, 1995.
- Liefeld, Walter L. *New Testament Exposition*. 황창기 역. 『신약을 어떻게 강해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88.
- Marshall, I. Howard. and Seifrid, Mark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Acts·Romans*. 김현광·배성진 역. 『사도행전·로마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_____.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Acts*. 왕인성 역. 『사도행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Mounce, Robert H. *The Essential Nature of New Testament Preaching*. Grand Rapids: Eerdmans, 1960.
- Robinson, Haddon W. *Bible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 정장복 역.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7.
- Rose, Lucy Atkinson. *Sharing The Word: Preaching in The Roundtable Church*.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Schnabel, Eckhard J. *Zondervan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Acts*. 정현 역. 『사도행전』. 서울: 디모데, 2018.
- Stott, John, *The Message of Acts: To The Ends of The Earth*. 정옥배 역. 『사도행전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 Swindoll Charles R. *Swindoll's New Testament Insights on Acts*. 윤종석 역. 『사도행전』. 서울: 디모데, 2017.
- Willmon, William H. *Acts Interpretation*. 박선규 역.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Abstract

Peter's Preaching on Kerigma: A Study on thd Acts 2

Lee, Young C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erygma sermon preached by Peter in Acts 2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and to present principles and frameworks for application to modern sermons. The crisis of the Korean church today lies in the essential problem of missing the gospel and the inability to deliver the message to the audience. The way to overcome this crisis in the Korean church can be seen as a kerygmatic message, which is the core of the gospel proclaimed by Peter. The result of the kerygmatic message that Peter proclaimed is that three thousand people repented and were saved. In relation to this fact, this study finds an application point for modern preach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analyzing the kerygma sermon, which is the prototype of the gospel in Acts 2. The Apostle Peter's kerygma is the message of redemption through the central point of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that is, the substitutionary death and resurrection for mankind's sins.

The form of the kerygmatic message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as a kerygma, it can be seen from Peter's sermon recorded in Acts 2:22-33, whose core is to proclaim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Second, the euangelion is the result of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Jesus Christ. This can be seen from Peter's interpretation of Jesus Christ, who is "Lord and Christ" by quoting Psalm 110:1 in Acts 2:33-36. Third, as the Didache message, it is revealed in Acts 2:37-41 in the call to the audience to repent and be baptized. Didache is a message for the application of the sermon. Therefore, kerygma can be viewed as text-centered message, Euangelion as text-centered interpretation, and didake as text-centered interpretation. The "Kerygmatic Message" can be accepted as the expression that combines these three elements. This study can be a small help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modern church.

Key words: Modern sermons, kerygmatic message, kerygma message, euangelion message, didake message, expository sermon.

[발표 2]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에 관한 연구"



최광희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 D.)

I. 들어가는 글

설교는 정당성(validity)이 있는 성경해석을 통해 도출해 낸 메시지를 청중의 삶에 연관성(혹은 적실성 relevancy)이 있도록 전달해주는 것이다.¹⁾ 정당성이 있는 성경해석을 통해서 도출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청중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킬 때 그 설교를 효과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²⁾ 설교를 통해 청중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한, 설교와 청중 사이의 연관성이 필수적이다.³⁾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연관성이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청중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설교자가 청중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영역은 다양하다. 그런데 일부 설교학자의 설교 방법론을 살펴보면, 그들의 청중 이해가 효과적인 청중 전달에 강조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청중 이해에서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법만이 아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청중 이해는 청중에 대해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청중 이해란 무엇인가?

청중의 내면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또한, 청중은 교회에서 배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 무엇이 유익한지 고민한다. 모순적인 세상에서 갈등하는 청중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청중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청중 이해는 청중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⁴⁾

연구자는 먼저 ‘균형 있는 청중 이해’란 무엇인지 규정한 후에 청중이 하나님과

1)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9.

2) 이승진, “설교의 적실성과 적용”,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4/2 (2012 가을): 28.

3)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가페북스, 2018), 104.

4) 최광희, “설교자의 청중 이해가 청중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12 (2020 가을): 82-84.

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며, 성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며,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각각 어떤 존재인지 삼중관점으로 청중을 이해하려고 한다. 설교자가 이렇게 삼중관점으로 청중을 이해할 때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리처드 아스머(Richard R. Osmer)가 설명하는 ‘실천신학적 해석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스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함으로, 그 상황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질문들은 ①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②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③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④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다.⁵⁾

아스머의 방법론으로 청중 이해를 탐구하려면, 먼저 기존 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후에 바람직하고 균형 잡힌 청중 이해의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펴는 글

1. 기존 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와 삼중관점

기존 설교학자의 청중 이해를 고찰하기에 앞서 설교학의 흐름을 구분할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설교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루시 로즈(Lucy Atkinson Rose)는 설교학의 흐름을 전통적인 설교학, 케리그마 설교학, 그리고 신설교학으로 구분하고 평가한다. 그 후 신설교학을 보완하는 자신의 대화 설교학을 제시하였다.⁶⁾

이승진 교수는 현대 설교학의 동향을 정리하면서, 70년대 이후 설교학은, 신설교학 운동과 탈자유주의 설교학, 목회 리더십과 결합한 설교,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의 네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였다.⁷⁾

권호 교수는 장르를 설교에 적용하려고 노력한 설교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교

5)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2), 27-28.

6) Lucy Atkinson Rose, *Sharing the word*,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179.

7) 이승진,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는 설교학: 현대 설교학의 동향”, 『기독교개혁신보』 (2017년 3월 8일자)

학의 흐름을 신설교학, 문예 접근적 설교학, 복음주의 설교학회,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단으로 구분하였다.⁸⁾

위에서 살펴본 세 설교학자들의 기준을 통해 연구자는 설교학의 흐름을 전통적 설교학과 신설교학, 그리고 신설교학 이후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을 “성경적 설교학”으로 명명하고 각 설교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청중 이해를 살펴 보려고 한다.

1) 전통적 설교학자의 청중 이해

전통적 설교학의 대표자로는 먼저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를 선정했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회중석에 지나친 강조점을 둔 그릇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⁹⁾ 로이드 존스는 현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소통의 문제, 즉 용어의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거짓된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복음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선포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라고 강조한다.¹⁰⁾

그러면서도 로이드 존스는 청중을 배려한 탁월한 설교 전달자였다. 토니 사전트(Tony Sargent)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가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은 5가지이다.¹¹⁾ 첫째로 부정(negative)을 사용한 것이다. 둘째로 질문 기법도 많이 사용했다. 셋째로 예화 사용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넷째로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탁월한 내러티브 설교자였다. 사전트의 설명을 종합하면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서 성령의 능력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존 스토틀(John Stott)를 전통적 설교자의 대표로 선정했다. 스토틀은 설교자를 청지기, 반포자, 증인, 아버지, 종의 다섯 가지 이미지로 설명했는데 스토틀가 말하는 설교자상(像)의 상대적인 대상은 바로 그가 이해하는 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¹²⁾

(1) 설교자를 청지기(A Steward)로 보는 스토틀에게 청중이란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가족이다. (2) 설교자를 반포자(A Herald)로 볼 때 청중은 알아들을 수 있

8) 권호, “현대설교의 한 흐름: 장르가 살아있는 설교”, 한국성경신학회, 「교회와 문화」 31 (2013): 147-72.

9)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134-39.

10) Lloyd-Jones, 『목사와 설교』, 145.

11) Tony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황영철 역,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서울: IVP, 1996), 273-93.

12) John Stott, *The Preacher's Portrait*, 문창수 역, 『설교자상』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2), 8.

도록 설득할 대상이다. (3) 설교자를 증인(A Witness)으로 볼 때 청중은 길을 설명해 주기보다 길을 보여주며 직접 데리고 가야 하는 대상이다. (4) 설교자를 아버지(A Father)로 볼 때 청중은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자녀이다. (5) 설교자를 종(A Servant)으로 볼 때 청중은 말씀을 잘 먹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여 주님께 돌려 드릴 존재들이다.

2) 신설교학자의 청중 이해

신설교학자들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설교를 중시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설교학의 대부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은 『권위 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과 『크래독의 설교 레슨』(*Preaching*)에서 청중을 다음 다섯 가지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1) 설득의 대상: 크래독은 오늘날의 청중은 능동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설교자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수동적 존재이며 설득의 대상이라고 한다.

(2) 설교에 참여하는 존재: 한편으로 크래독은 청중이란 설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결코 청중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3) 설교의 컨텍스트를 가진 존재: 설교는 특정한 청중들 앞에서 말로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이기에 설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목회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¹³⁾

(4) 관객과 동시에 회중: 크래독은 초청 강사가 회중을 바라보듯이 청중을 ‘모르는 사람들’로 상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생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¹⁴⁾ 그렇게 훈련한 후에는 청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5) 본문 해석이 필요한 존재: 크래독은 설교자는 먼저 성경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그가 청중을 본문을 ‘해석하여’ 전해줄 필요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3) 성경적 설교학파의 청중 이해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학파는 신설교학이 청중 전달을 중시하다가 놓쳐버린 본문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설교학의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성경적 설교

13)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47-62.

14) Fred B. Craddock, *Preaching*,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대서, 2007), 137-43.

학파의 대부 해돈 로빈슨과 그의 제자들은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해돈 로빈슨의 *Biblical Preaching*은 본문 강해를 매우 강조하면서도 청중 전달 역시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빈슨은 주석적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충고하는데 메시지를 핵심 문장에 담을 때 청중에게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로빈슨은 청중 전달을 위해 예화 사용과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로빈슨은 설교자의 용모, 적절한 제스처(gesture), 시선 배분(eye contact), 그리고 말의 고저장단(tone)과 속도(speed) 및 볼륨(volume)까지 청중에게 잘 전달되도록 조절하고 연습하라고 충고한다.¹⁶⁾

로빈슨의 제자 스티븐 매튜슨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런 청중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¹⁷⁾ 그러므로 강해 설교자들은 주해의 기술만 연마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의 기술도 연마하라고 주문한다.¹⁸⁾

로빈슨의 또 다른 제자 제프리 아더스는 획일적인 형식으로 설교하지 말고 다양한 형식으로 설교를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그가 다양한 형식으로 설교하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하루 종일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하자는 의미이다. 셋째, 현대인들은 간접적인 정보를 배척하고 직접 참여하는 상호 학습 방식을 원하기 때문이다.¹⁹⁾ 결국 매튜슨과 아더스 역시 청중을 의사소통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삼중관점의 청중 이해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존 설교학자들의 청중 이해는 주로 의사소통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영역에 대한 규범을 세우려고 할 때 한 가지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균형을 잃고 편중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청중 이해의 방법은 무엇인가?

존 프레임은 윤리학에 접근하는 방식에 실존론적 윤리학, 목적론적 윤리학,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학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한다.²⁰⁾ 프레임이 말하는 삼중

15)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강해 설교 :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26.

16) Robinson, 『강해 설교』, 258-73.

17) Steven D. Mathewson,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2.

18) Mathewson,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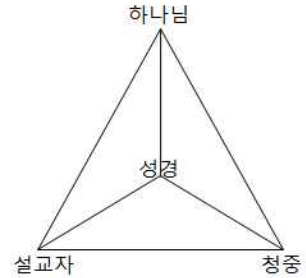
19) Jeffrey D. Arthus, *Preaching With Variety*, 박현신 역,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8), 48-49.

20) John M. Frame, *God*, 김재성 역, 『신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291.

관점을 청중 이해에 적용한다면 삼중 관점의 청중 이해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요한 실리에(Johan H. Cilliers)에 따르면 “설교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과 성경 본문의 음성, 청중의 음성, 그리고 설교자의 음성이 설교 강단에서 신비스
럽게 합류하고 있다.”²¹⁾ 실리에의 말에서 발견되는 설교의 구성요소는 곧 하나님,
성경, 청중, 그리고 설교자이다.

이승진 교수는 설교의 구성요소를 <그림 1>과 같
은 도표에 대입하고 각 구성요소의 상호 관계 속에
서 청중 이해를 설명한다.²²⁾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중은 신학적인 존재이다. 성경과의 관계에서 청중
은 해석학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설교자와의 관계에
서 청중은 의사소통적인 존재이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청중을 이해할 때 “균형 잡힌 청중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2 >

2. 신학적 존재로서의 청중 이해

청중은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는 존재
이다. 동시에 청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격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역
설적인 긴장(paradoxical tension)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²³⁾ 그렇다면 설교
자는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 긴장을 느끼는 청중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1) 언약 신학과 청중의 정체성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고 하셨
다(요 16:8).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언약 신학의 관
점으로 접근할 때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21)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62.

22)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실천신학』 6 (2003): 84.

23)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63.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무조건적 언약에 인간이 이행할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여부를 신자들에게 걸어놓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 및 언약의 증표까지 주셨음에도 인간들은 순종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면서 체결한 언약이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까? 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 당사자의 수준의 차이가 문제이다.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 당사자의 수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데 수준이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수준이 같은 인간 대표자를 보내어 주셨다.

둘째는 마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인(印)을 쳐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동거(Mutual Indwelling)하는 새 언약에서 신자는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²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지만 청중 가운데는 새 언약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을 통하여 새 언약의 내용을 청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청중에게 자신이 구속사의 연장선에서 있는 주인공임을 인식하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청중이 여전히 신앙의 역설적 긴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의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후크마에 의하면 현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초림(初臨)하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²⁵⁾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세상에서 천국의 법으로 살려고 하는 신자에게 신앙의 역설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청중에게 설교자가 신앙의 역설적 긴장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체성을 정립해줄 때, 청중이 그 긴장을 감당해낼 힘이 생길 것이다.²⁶⁾

24) 손석태, “옛 언약과 새 언약”, 개신대학원대학교, 「개신논집」 15 (2015): 26.

25)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36.

26)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사는 신자의 유익에 대하여는 『개혁주의 종말론』 102-112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신자 중에는 신앙의 역설적 긴장을 묵묵히 감내하는 성숙한 신자도 있지만 수시로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신자들은 왜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까? 또 이런 청중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야 할 것인가? 이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통해서 볼 때 청중의 그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인식과 청중 이해

한 개인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신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을 “소명-중생-회심-신앙-칭의-양자-성화-견인-영화”의 아홉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⁷⁾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의 각 단계에 처한 청중과 설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1) 소명: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설교자가 한 인생의 심령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서 내적 부르심의 사역을 하신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내적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

(2) 중생: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단계는 중생(重生)이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성령님께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중생하지 못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한 사람의 중생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해서 설교를 듣는 회중은 언젠가는 분명히 중생하고 또 성화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청중을 바라보고 청중을 부담감 없이 사랑하면 된다. 그런 확신은 청중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결국에는 설교자가 바라보는 청중의 모습이 실현될 것이다.

(3) 회심: 중생 다음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서정은 회심이다. 회심은 중생과 달리 본인이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달리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²⁸⁾ 퇴보된 신자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회심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설교자가 퇴보된 청중을 불신자나 가라지로 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설교자는 회심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회심을 촉구할 사명이 있다.

참고하라.

27)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운 역,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74), 211-57.

28)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박희석 역, 『벌코프 조직신학 개론』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16.

(4) 신앙: ‘신앙’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개인의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단계이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듯이(막 1:15) 대부분의 설교에서의 핵심은 믿으라는 것이다.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만 설교는 믿음의 동인이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함으로 신자가 확신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5) 칭의: 칭의는 구원의 서정의 다른 단계와는 달리 죄인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수동적 칭의는 죄인의 마음에서 발생하지만,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발생한다. 또 칭의의 요소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 적극적 요소에는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칭중이 법적으로 칭의와 양자됨의 정체성(identity)이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도록 설교자가 지속해서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6) 양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칭의와 동시에 양자가 되는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높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²⁹⁾ 벌코프의 말처럼 “부모가 양자로 택하는 행위만으로는 아이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처럼 양자됨이 죄인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³⁰⁾ 하지만 설교자가 칭중에게 칭의와 양자됨의 정체성을 지속해서 인식시켜 줌으로 성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양자가 된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즐거운 의무도 생긴다. 칭중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개인의 성화와 함께 그가 속한 신앙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설교자는 칭중이 새로운 신분의 특권을 인식하고 누리도록 계속해서 인식시켜 줄 사명이 있다.

(7) 성화: 성화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소명”부터 “양자”는 논리적 단계일 뿐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반면에 성화는 일평생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대부분 신자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성화 단계에 있는 칭중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야 하는가?

성화는 자연스럽게 선한 삶으로 귀결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응하는 영적 의미의 선행을 의미한다. 만일 설교자가 칭중에게 성화의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율법주의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추구해야 한다.

(8) 견인: 성화 단계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役事)에 따라 견인(堅忍)되고 있다. 한번 선택되고 구원받은 신자는 다시는 그리스

29) John M. Frame, *Systematic theology :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김진운 역,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994.

3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768.

도에게서 단절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청중의 역설적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하며 설교자가 청중에게 담대히 설교할 근거를 제공한다.

견인은 청중을 나태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청중에게 신앙의 역설적 긴장을 견디어 내도록 용기를 주며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근거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긴장 사이에 있는 청중에게 전할 설교의 핵심 주제이다.

3) 청중의 역설적 긴장과 설교의 방향

청중이 느끼는 역설적 긴장을 이해하는 설교자는 그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설교의 핵심적 이슈로 삼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지식을 자랑하거나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역설적 긴장 때문에 파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설교의 이슈로 삼아야 한다.

설교의 적용 역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스텔렌보쉬대학교의 실천신학자 다니엘 로우(Daniël Johannes Louw)에 의하면 설교자는 청중을 인간론(anthropology)이나 기독교론(Christology)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론(Pneumatology)과 종말론(Eschatology)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³¹⁾ 설교자가 청중을 성령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록 지금은 역설적 긴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로 볼 수 있다.

3. 해석학적 존재로서의 청중 이해

신학적 존재로서의 청중 이해에 이어 생각해볼 것은 성경과 청중의 관계를 통한 청중 이해이다. 청중은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장을 해소해 나간다. 이런 면에서 성경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청중을 “해석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해석학적인 존재인 청중은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해석학적인 존재인 청중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어떤 해석학적 관점을 가져야만 그 설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1) 성경과 청중의 관계

청중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매개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위치하면서 하나님과 청중 사이의 역설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중재적 역할을 담당한다.³²⁾

31) Daniël Johannes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Cape Town: Lux Verdi, 1999), 170.

그런데 청중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성경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긴장이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청중이 이해한 성경과 그가 마주하는 세상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중과 성경의 관계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긴장 관계는 “5단계 로고스의 맥락화” 이론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2) 로고스의 맥락화와 구속사에 참여하는 청중

해석학적인 존재인 청중은 구속사의 연장선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은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중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설교자가 청중에게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구속사의 연장선에서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5단계에 걸친 로고스의 맥락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승진 교수에 의하면 “로고스의 맥락화(logos contextualization)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대적 환경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과정에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수용자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³³⁾

이러한 로고스의 맥락화는 모두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³⁴⁾

- 1단계, 삼위 하나님에 의한 과거의 구속 사건과 말씀을 통한 계시
- 2단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성경 기록(언어적 전환)
- 3단계, 성령의 조명에 의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설교자의 추체험
- 4단계, 설교 메시지를 통한 말씀 선포와 성령의 조명을 통한 청중의 추체험
- 5단계, 교회의 표지를 통한 말씀의 가시적 성취(역사적 전환)

“5단계 로고스의 맥락화”에 비추어 볼 때 기록된(2단계) 성경 말씀을 대하는 청중을 해석학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학적인 존재인 청중이 과거에 발생한 구속 사건을 추체험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먼저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성경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과거의 구속 사건을 먼저 추체험해야 한다(3단계). 그리고 설교자가 추체험한 성경 말씀을 청중에게 선포할 때 청중들도 똑같은 구속 사건을 추체험하

32) 이승진,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70.

33) 이승진, “해석학적인 실재론에 근거한 성경해석과 설교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54 (2020): 207.

34) 이승진, “해석학적인 실재론에 근거한 성경해석과 설교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 207-225.

게 된다(4단계). 이러한 추체험을 위하여 설교자에게는 어떠한 성경해석의 원리가 필요한가?

3)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

더글라스 스투어트와 고든 피는 『성경해석 방법론』에서 성경해석의 3대 지침을 역사적, 문법적(혹은 문학적, 문맥적), 신학적 관점의 해석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3대 지침을 살펴보면 신학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³⁵⁾ 한편 해돈 로빈슨의 강해 설교에 대한 정의에서는 ‘신학적 연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³⁶⁾ 이런 상황에서 성경해석에 관한 명쾌한 설명의 대안으로 연구자는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 원리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승진 교수에 의하면, 성경 본문 안에는 수신자의 상황과의 필연적인 상관성이 이미 선행하고 있다.³⁷⁾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본문(text)에 접근할 때 텍스트(text) 기록자들이 수신자의 상황(context)적 필요에 따른 소통행위를 함에 있어 수사적인 목적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는 선행 자료(pre-text)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은 후속 결과(post-text)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은 성경 해석자가 본문(text)을 해석할 때 본문(text)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당시 수신자가 처한 상황(context)과 그 상황적 목적에 따라 기록자가 사용한 선행 자료(pre-text) 및 그가 의도한 후속 결과(post-text)까지, 네 가지 텍스트(text)를 해석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원리로 해석할 때 본문(text) 자체는 문법(학)적으로 해석하고, 선행 자료(pre-text)와 상황(context)의 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며, 기록자가 의도한 후속 결과(post-text)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 그 과정에서 해석자는 과거의 구속 사건을 추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설교자가 자신

35) Douglas Stuart & Gordon D. Fee, *Old and New Testament Exegesis*, 김의원 역, 『성경해석 방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38-40.

36)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21. 박영호 역, 『강해 설교』, 23쪽에는 “신학적으로 연구하여”라는 표현이 있지만 로빈슨의 원문에는 ‘theological’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 Daniel Akin 외 2인, *Text-driven preaching :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김대혁 · 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설교』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6), 237.

37) 이승진, “안식일 논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과 설교”, 합신대학원출판부, 『신학정론』 38/1 (2020/06): 351.

이 추체험한 과거의 구속 사건을 설교를 통해 전달할 때 청중들도 설교자와 똑같은 추체험을 하면서 구속사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3)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해석의 실례(實例)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을 위한 실례(實例)로 연구자는 마태복음을 주목하였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는데 이를 위해 많은 구약 본문을 인용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인용한 첫 번째 사례(事例)는 마태복음 1:18~25이다.

(1) 선행 자료(pre-text): 이 본문(text)을 해석하기 위하여 선행 자료(pre-text)인 이사야 7:10~16을 먼저 살펴보자.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북 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남 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동맹군을 막아낼 군사력이 없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베가와 르신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패망하여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시며(사 7:8). 그 예언이 이루어질 징조(徵兆)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징조 구하기도 거부했다.³⁸⁾ 아하스가 이처럼 불신을 드러내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친히 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는 바로 한 알마(אֵלֶמָּ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2) 컨텍스트(context):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던 상황을 생각해보자.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텍스트 내부적 상황(context)으로는 요셉이 있었고 텍스트 외부적 상황(context)로는 그 당시의 여러 유대인이 있었다.

처음에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에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뜻밖의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여섯 달이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수긍하게 되었다. 이때 엘리사벳의 임신은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가 가능하다는 증언(증거 witness)을 위한 표적(表迹 τῆς sign)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다(눅 1:27).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38)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김만풍 역, 『핸드릭슨 성경주석 마태복음(상)』(서울: 아가페북스, 1989, 개정판 2016), 219-20.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같은 원리로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본문(text):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확고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 마태는 성령으로 인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요셉이 결국 의심이 신앙으로 바뀐 내러티브를 기록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이사야 7장 10~16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천사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는 1세기의 모든 유대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4) 후속 의도(Post-text): 1세기의 독자가 이 증언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수십 번이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사실들을 읽어가는 동안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 “예수는 여호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 구절 가운데 마태가 동정녀 탄생 예언을 첫 번째로 인용할 때 마태는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목표로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현대의 청중들도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4. 의사소통적 존재로서의 청중

앞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설교자가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과정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사건을 추체험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자신의 추체험을 청중 앞에서 설교할 때 청중 역시 설교자와 같은 추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청중은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설교자가 청중에게 자신의 추체험을 전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해 보자.

1)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설교의 근거

인간 설교자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생기는가? 설교자는 사람의 필요성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권위에 의해 설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셨다.³⁹⁾ 이어 19~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바로 이러

한 대 위임 명령에 따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권위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인간 설교자와 ‘공동 설교자’가 되어 주시며 동시에 ‘첫 번째 청중’이 되어 주심으로 설교자의 설교에 권위를 부여하신다. 독일의 설교학자 루돌프 보렌(Rudolf Bohren)은 누가복음 24:36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교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 설교자와 공동 설교자가 되어 주신다고 설명한다.⁴⁰⁾

한편, 설교자는 보이는 청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청중 앞에서 설교한다. 보이지 않는 ‘그 청중’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청중보다 먼저 주목받기를 원하는 삼위 하나님이다. 루돌프 보렌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청중이 되시기에 그 설교는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 설교”라고 주장한다.⁴¹⁾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설교자가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공동 설교자이시며 첫 번째 청중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의 권위를 부여받은 설교자는 청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2) 설교자의 청중관과 언어의 기능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교육학자 브루스 윌킨슨(Bruce H. Wilkinson)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기대의 법칙”을 정립했다.⁴²⁾ 이 이론에서 윌킨슨은 교사가 가진 기대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기대의 법칙 현상은 교육 현장만이 아니라 설교 현장에서 적용되어 청중을 향한 설교자의 기대는 청중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뇌 과학자 브루스 후드(Bruce Hood)는 한 사람의 자아 인식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 형성되고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후드는 이것을 <그림 2>와 같은 관계도를 통해서 설명한다.⁴³⁾ <그림 2>에서 가운데에 보이는 사각형은 둘

39) Herman N. Ridderbos, *The Bible Student's Commentary - Matthew*, 오광만 역, 『마태복음(하)』 (서울: 여수론, 1990),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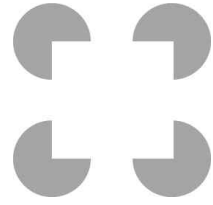
40) Rudolf Bohren,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69.

41) Rudolf Bohren,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51-52.

42) Bruce H. Wilkinson, *The 7 laws of the learners*, 홍미경 역,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상)』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1995), 101-106.

43) Bruce Hood, *The self illusion*, 장호연 역,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모두 가짜라면』 (서울: 중앙북스, 2012), 12.

러싼 네 개의 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만일 주변 원의 모양이 왜곡된다면 사각형의 모양도 찌그러져 보일 것이다. 후드는, 바로 이 사각형처럼 한 사람의 자아 인식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 형성되고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청중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가운데 설교자는 특히 영향력이 큰 존재이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말로서 청중에게 가치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렇다면 설교자는 청중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말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설교자가 사용하는 말은 청중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과 중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독일의 언어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언어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으로 만드시는 대신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한 그 말씀을 인간에게 방출함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위임하셨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그 말로써 무엇을 해야 할까? 벤야민에 의하면, 인간의 사명은 그 말로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사물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언어를 사용해서 사물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물언어(事物言語, Language of things)를 구술언어(口述言語, Oral language)로 드러내는 존재이다.⁴⁴⁾

사람이 말로서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역할은 곧 설교자의 역할로 연결된다. 설교자는 말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 역사를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중의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 즉 청중의 인생을 말씀으로 규정하고 구속사와 연결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설교자는 청중이 경험하는 사건들의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 청중이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인간 설교자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代言)하고 청중의 상황을 구속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반전과 깨달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3) 반전의 깨달음을 통한 메시지 전달

성경은 전체가 대반전의 드라마로 이루어져 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극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것은 첫

44) Walter Benjamin, *Philosophie und Sprache. Problemkritik und System*,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서울: 길, 2008), 78.

번째 반전이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버린 것은 아담 타락에 이은 더 큰 비극이고 절망이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리하셨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이처럼 성경의 구속사는 대반전의 드라마이다.⁴⁵⁾

성경의 구조가 이처럼 대반전으로 구성된 것을 볼 때 효과적인 설교 메시지 전달에도 반전과 깨달음의 플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러티브의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과 깨달음이 발생하면 청중에게 강한 호소력이 발휘될 수 있다.

반전과 함께 일어나는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설교 구성의 좋은 예는 유진 로우리의 내러티브 설교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진 로우리의 내러티브 설교형식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된다. ①Oops: 청중의 마음속에 평형감을 무너뜨리는 서론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②Ugh: 모순을 심화시키는 문제점 분석 과정, ③Aha: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암시하는 단계를 거쳐서 ④Whee: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⑤Yeah: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 이후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단계에서 종결된다.⁴⁶⁾

이 가운데 로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2단계인데, 내러티브 설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피상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답변을 끈질기게 추적해 들어가야 한다. 이 단계를 올바르게 밟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Oops)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모순의 원인에 대한 피상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인과율 식의 답변을 거부하다 보면 마침내 다른 대답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거의 '계시 차원에서' 얻어지는 답변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으로 설교 메시지 전달을 위한 수사적인 전략으로 반전과 깨달음이 발생할 수 있는 설교의 플롯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교 플롯을 구성하기 위한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4) 해석 관점에 부합되는 설교문 작성

설교자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와 같은 관점을 사용하는 것이 설교의 교집합 모델에 부합한다.⁴⁷⁾ 해석과 전달에서 같은 관점을 사용하기 위

45) 이승진,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46 (2015): 1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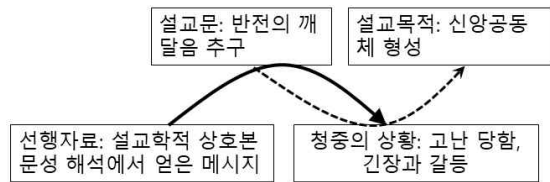
46) Eugene Lowry, *The homiletical plot :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 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9-98.

47) “설교의 교집합 모델”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승진, “언약 신학과 설교”, 합동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을 다시 생각해보자.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은 본문(text)보다 먼저 저자가 사용한 선행 자료(pre-text)를 살핀 후 그 선행 자료와 독자의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목표, 즉 후속 본문(post-text)을 도출해 내는 방식의 성경해석 관점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해석하여 설교의 중심 사상을 획득한 설교자는 설교문 역시 같은 관점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학적 상호본문성과 같은 관점의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앞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성경해석에서 네 종류의 텍스트(text)를 통해 해석하였는데 이제 설교자는 성경 본문(text)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자리에서 설교문(text2)를 기록하는 저자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한다.

상호본문성 관점의 설교문 작성을 위해 설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행 자료(pre-text2)는 다음 네 가지이다. 성경 저자가 사용했던 그 선행 자료(pre-text)과 성경 기록자 앞에 있던 청중의 상황(context), 성경 본문(text) 자체, 그리고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후속 본문(post-text)이 모두 설교문(text2) 작성을 위한 선행 자료(pre-text2)이다.⁴⁸⁾ 이제 설교자는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각종 선행 자료(pre-text2)와 청중의 상황(context2) 및 설교자가 의도하는 설교 목적(post-text2)을 감안하여 설교문(text2)을 작성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호본문성 관점의 설교문 작성을 도표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상호본문성 관점의 설교문 작성

III. 나가는 글

지금까지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설교자의 청중 이해를 존 프레임으로부터 도입한 삼중관점 구조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교는 정당성(validity)이 있는 성경해석을 통해 도출해 낸 메시지를 청중의 삶

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4/2 (2016): 350-51. 이승진, 『설교를 위한 성경 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45-51.
 48) 이승진, “삼위일체 중심의 설교학 방법론과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11 (2020 봄): 75.

에 연관성(relevancy)이 있도록 전달해주는 것이다. 연관성 있는 전달을 위해서는 청중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기존 설교자들의 청중 이해는 주로 효과적인 전달을 중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교 메시지가 청중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청중 전달이라는 한 가지 면만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힌 청중 이해가 되지 못한다. 균형 잡힌 청중 이해를 위해서는 청중 이해를 다중 관점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청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학적인 존재이고 성경과의 관계에서 해석학적인 존재이고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적인 존재이다.

한편, 정당성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라는 설명만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설교문 작성 역시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교자가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 느낀 추체험을 5단계 로고스의 맥락화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할 때 청중 역시 설교자와 동일한 추체험을 하게 되고 자신이 구속사의 연장선에 서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설교자가 균형 잡힌 청중 이해를 확보하고, 정당성과 적실성을 모두 갖춘 메시지를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 호. “현대설교의 한 흐름: 장르가 살아있는 설교”. 한국성경신학회. 「교회와 문화」 31 (2013): 143-78.
-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가페북스, 2018.
- 손석태. “옛 언약과 새 언약”. 개신대학원대학교. 「개신논집」 15 (2015): 5-33.
- 이승진. “말씀과 상황을 연결하는 설교학: 현대 설교학의 동향”. 「기독교개혁신보」 (2017년 3월 8일자)
- “반전의 깨달음을 위한 설교 플롯에 관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46 (2015): 117-145.
- “삼위일체 중심의 설교학 방법론과 설교학적 상호본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11 (2020 봄): 45-80.
- “설교의 적실성과 적용”.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4/2 (2012 가을): 27-55.
- “안식일 논쟁 내러티브에 대한 설교학적 상호본문성 관점의 해석과 설교”.

- 합신대학원출판부. 「신학정론」 38/1 (2020/06): 349-87.
- “언약 신학과 설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신학정론」 34/2 (2016): 324-60.
- “청중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실천신학」 6 (2003): 60-86.
- “해석학적인 실재론에 근거한 성경해석과 설교 메시지의 전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54 (2020): 198-231.
-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최광희. “설교자의 청중 이해가 청중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설교학회. 「설교한국」 12 (2020 가을): 77-102.
- Akin, Daniel 외 2인. *Text-driven preaching : God's word at the heart of every sermon*. 김대혁 · 임도균 역. 『본문이 이끄는 설교』. 서울: 베다니출판사, 2016.
- Arthus, Jeffrey D. *Preaching With Variety*. 박현신 역. 『목사님 설교가 다양해졌어요』.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8.
- Benjamin, Walter. *Philosophie und Sprache. Problemkritik und System*.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서울: 길, 2008.
-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박희석 역. 『벌코프 조직신학 개론』.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 신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74.
-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Bohren, Rudolf.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Predigtlehre*. 박근원 역. 『설교학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Cilliers, Johan H.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 Revisiting the basic principles of preaching*. 이승진 역. 『설교 심포니』.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Preaching*. 이우제 역. 『크래독의 설교 레슨』. 서울: 대서, 2007.
- Frame, John M. *God*. 김재성 역. 『신론』.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 . *Systematic theology :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belief*. 김진운 역. 『존 프레임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김만풍 역. 『핸드릭슨 성경주석 마태복음(상)』. 서울: 아가페북스, 1989, 개정판 2016.
- Hoekema, Anthony A.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Hood, Bruce. *The self illusion*. 장호연 역.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모두 가짜라면』. 서울: 중앙북스, 2012.
- Lloyd-Jones,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서문강 역. 『목사와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 Louw, Daniël Johannes.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Cape Town: Lux Verdi, 1999.
- Lowry, Eugene. *The homiletical plot :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연길 역. 『이야기식 설교 구성』.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Mathewson, Steven D.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역. 『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Osmer, Richard R. *Practical theology : an introduction*. 김현애 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12.
- Ridderbos, Herman N. *The Bible Student's Commentary - Matthew*. 오광만 역. 『마태복음(하)』. 서울: 여수론, 1990.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Expository Messag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 .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강해 설교 :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Rose, Lucy Atkinson. *Sharing the word*. 이승진 역.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Sargent, Tony. *The Sacred Anointing*. 황영철 역.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서울: IVP, 1996.
- Stott, John. *The Preacher's Portrait*. 문창수 역. 『설교자상』.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2.
- Stuart, Douglas & Fee, Gordon D. *Old and New Testament Exegesis*, 김의원 역. 『성경해석 방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Wilkinson, Bruce H. *The 7 laws of the learners*. 홍미경 역.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상)』.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1995.

Abstract

One of the main goals of preaching is to connect the world of the biblical text with the world of the church audience. To achieve this goal, the preacher must first secure the methodology of biblical interpretation from the right perspective and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the audience.

As a method of biblical interpretation from a legitimate point of view, the researcher presented a method of biblical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eaching intertextuality'. The methodology begins by first studying the context of the pre-text cited in the text. And the author's awareness of the reader's context is studied. Only then can we study the biblical text itself, which requires contextual, grammatical, and literary studies. Finally, the author's intention to achieve (post-text) is derived, and the intention of the tex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central idea of the text.

For a balanced audience understanding, the researcher pursued a three-way audience understand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audience, the audience is a theological be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nd the audience, the audience is a hermeneutic being,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the audience is a communicative being.

The audience, as a theological being, possesses the identity of covenant theology, but is in the paradoxical tension of faith because they are treading the lyric of salvation. The audience, as a hermeneutic being, has been relieved of tension with God through the Bible, but the tension with the Bible is still there. For this audience, the preacher must make the audience realize that they are standing on the line of redemptive history through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five-step logos. Audiences as communicative beings are affected by the speaker's audience view and requir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Key word: audiences, biblical interpretation, intertextuality, triple perspective, paradoxical tension, covenant theology

[발표 3]

마틴로이드 존스의 성령세례 이해와 진정한 설교(True Preaching)에 관한 연구



박동진 박사 (McMaster Divinity College/ Ph. D.)

1. 들어가는 글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있는 개혁주의 설교자 D. Martyn Lloyd-Jones(1899-1981)는 진정한 설교(true preaching)야 말로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¹⁾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설교란 교회의 주요하고 특별한 임무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데 그의 설교학의 뿌리는 그의 성령론에 있으며,²⁾ 그의 성령론의 중심에는 그의 성령 세례(the baptism with the Spirit)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정의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설교는 설교문(the sermon)과 설교 행위(the act of preaching)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 진정한 설교는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설교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설교자들은 진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참된 기독교 설교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동반해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능력의 세례 없이는 성경의 온전한 교리를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설교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봉사에 있어서 능력의 부여(empowerment for service)를 포함한 신자의 다양하고도 넓은 영적 경험들을 다루고 있다. 사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주로 논쟁을 일으킨 부분은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 그의 설교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중생의 사건과는 다른, 회심 이후의 성령의 특별한(exceptional) 역사의 체험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중생과 성령 세례를

1)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Ministry Resources Library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1972), 9.

2) Tony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Wheaton, IL: Crossway, 1994), xii.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그는 참된 신자로 할지라도 성령으로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로이드 존스의 사후에 성령 세례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의 설교집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1984)과 *Prove All Things: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1985)이 출판되었을 때, 그는 죽었어도 자신이 속해 있던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 거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설교들은 이전의 로이드 존스가 견지했던 참된 개혁주의 신학으로부터 일탈한 것이었으며, 로이드 존스가 “일종의 신학적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수도 있다”³⁾는 증거들이었다. 개혁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이와 같은 신랄한 비판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성령 세례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순간에 누리는 최초의(initial) 경험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이중 패러다임(중생-성령 세례)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는 오순절주의와 동일하다거나, 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설파되었던 “구원의 확신”(assurance of salvation)과 “부흥”(revival)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전통의 두 교리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동시에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이 두 교리들을 원래의 내용 그대로 다시 소개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 교리들을 발전시키고, 재전유화(re-appropriation)한 것이다. 그의 성령 세례 교리는 한편으로는 청교도 영성과 웨일즈 부흥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향한 로이드 존스의 평생의 갈망과 이로 인한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열정적인 독서와 연구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매트릭스”(모판)이었다. 로이드 존스 안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른 성령 세례 교리 입장을 견지하도록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매트릭스는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 역시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참된 기독교 설교는 설교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고, 내용에 있어서 교리적이며, 목표에 있어서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학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설교란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그의 설교학을 개혁주의 전통과는 구별되게 하는데, 이것 역시 그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낳은 결과인

3) Andrew Atherstone, “Lloyd-Jones and the Charismatic Controversy,”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114.

것이다. 결국, 로이드 존스 안의 부흥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근거의 매트릭스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진정한 설교에 관한 그의 신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 이와 같은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그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그의 설교학이 어떠한 지점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학과 구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설교를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신념이 오늘날 설교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와 강연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여섯 개의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구별되는 사건이며,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예외적인(exceptional) 역사의 체험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사역을 일반적인(간접적인) 사역과 예외적인(직접적인) 사역으로 구분한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는 죄의 깨달음(conviction), 중생, 성화 등을 들 수 있다.⁴⁾ 성령의 예외적인 사역으로는 구원의 확신(assurance), 증거(witness), 사역(ministry) 등과 관련이 있다.⁵⁾ 전자는 말씀을 매개로 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며, 후자는 말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적이고(immediate) 압도적인(overwhelming) 성령의 사역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의 경우는, 후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신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⁶⁾ 로이드 존스는 이 온전한 확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말한다.⁷⁾ 그에 따르면,

4) D. Martyn Lloyd-Jones,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 Harold Shaw, 2000), 66.

5) Lloyd-Jones, *Joy Unspeakable*, 66.

6) Lloyd-Jones, *Joy Unspeakable*, 38.

7) Lloyd-Jones, *Joy Unspeakable*, 90.

신자에게는 세 종류의 확신이 있다. 첫번째 유형의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성경의 내용을 추론하여 얻게 되는 확신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확신이다.⁸⁾ 두번째 유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지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얻게 되는 확신이다.⁹⁾ 세번째 유형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친히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확신이다.¹⁰⁾ 로이드 존스는 이처럼 성령 세례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롬 8:16(“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을 든다.

셋째,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 세례와 부흥의 개념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는 부흥이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¹¹⁾ 또한 그는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 혹은 부흥이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 그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넷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위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행 4:8)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한 또 다른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란 이처럼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그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오순절날에 일어난 일들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었다고 주장한다.¹³⁾ 더 나아가, 로이드 존스는 복음 설교를 위한 사도적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한다.¹⁴⁾

8) Lloyd-Jones, *Joy Unspeakable*, 91-92.

9) Iain H. Murray,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8), 128.

10) Lloyd-Jones, *Joy Unspeakable*, 93.

11) Lloyd-Jones, *Joy Unspeakable*, 51.

12)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25.

13) D. Martyn Lloyd-Jones, *Revival*, (Wheaton, IL: Crossway, 1987), 199.

14)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51.

다섯째, 성령 세례는 설교 행위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동시에 신적 권위(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로이드 존스는 18세기 부흥의 주역들인 George Whitefield(1714-1770)와 Howell Harris(1714-1773)의 저널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The Lord came down among us)”는 비슷한 표현이 발견되는 것에 주목한다.¹⁵⁾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은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있어서 신적 권위를 동반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표현은 설교자가 설교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임재의 체험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신(messenger)으로서의 큰 담대함을 얻게 해준다. 한편, 청중들 역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사람의 메신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¹⁶⁾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는 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교와 같은 증언(witness)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주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설교 행위 가운데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부여를 종종 “성령의 기름부으심(unction)”이라고 표현한다. 이 “기름부으심”이라는 표현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설교와 관련되어 나타날 때 쓰는 기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설교 사역에 나타나는 이 기름부으심을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며,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설교자의 노력과 수고를 초월하여 능력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⁷⁾

지금까지 우리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강의와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주장했던 성령 세례의 중요한 여섯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이해는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둘의 관련성이야말로 그가 한편으로는 개혁주의 전통의 설교학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펼쳐나가게 된 근본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에 대해 살펴본 다음, 그가 성령 세례 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별된 설교학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2.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적 이해

15)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16.

16) Murray, *Messenger of Grace*, 32.

17)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22.

로이드 존스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우위성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참된 설교란 방식에 있어서 강해적이며, 내용은 교리적이며, 목표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설교학 전통, 특히 영국 청교도들과 이들의 계승자인 Jonathan Edwards(1703-1758)의 설교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John Calvin(1509-1564)과 청교도들처럼 교회와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⁸⁾ 설교의 우위성에 대한 그의 신념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모두 궁극적으로 설교자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¹⁹⁾ 또한 교회의 역사, 특히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설교는 항상 중심적이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그는 말한다.²⁰⁾ 무엇보다 설교가 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로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와 설교자의 긴급한 임무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다.²¹⁾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개인 상담과 심리 치료와 같은 설교 이외의 사역들은 설교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설교를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²²⁾

로이드 존스는 설교의 내용이 참된 설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설교가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교가 항상 강해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²³⁾ 그런데 참된 강해 설교는 또한 교리적인 설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원리들과 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⁴⁾ 로이드 존스는 만약 설교자가 성경 텍스트의 한 구절이나 한 섹션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 안에 넣어 두신 구체적인 명제나 중요한 교리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 로이드 존스는 성경 텍스트

18)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68.

19) D. Martyn Lloyd-Jones,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4), 375

20)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11.

21)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27-29.

22)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40.

23)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71.

24) Iain H. Murray, *The Life of Martyn Lloyd-Jones 189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3), 307.

25) Park Wan-Chul, "The Integration of the Word and Experience in the

안에 있는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설교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²⁶⁾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청중들의 지성(mind)에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의 마음(heart)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 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죄를 주목하게 하며, 설교자의 결단의 요청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보았다. 청교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문 안의 교리적 내용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로서 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청중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 구조는 “강해-교리-적용”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의 3단계 설교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교리를 설교한다는 것은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지식을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설교를 “불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신학”이라고 정의한다.²⁷⁾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을 깨닫고, 이 교리들을 설교하면서 깊이 감동을 받게 될 때, 설교자는 불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진정한 설교란 성경 텍스트 속의 교리들을 경험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가 해야 할 일은 교리를 생동감있고, 생생하며, 열렬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일이다.²⁸⁾ 궁극적으로, 참된 설교란 청중에게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감각”하도록 해주는 설교이다.²⁹⁾ 설교의 주된 목적은 단지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상(impression)을 새겨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이드 존스 역시 설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단지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것에 두었다.

Preaching of David Martyn Lloyd-Jone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4 (2006), 530.

26) Steven J. Lawson, *The Passionat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2016), 128.

27)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7.

28) Lloyd-Jones, *The Puritans*, 360.

29)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7.

3.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의 중심에는 설교를 정의할 때,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올바른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설교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고 로이드 존스는 주장한다. 그리고 설교 행위의 경우에는 설교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로이드 존스의 생각에는 성령 세례와 설교의 긴밀한 관계는 설교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는 개혁주의 전통과는 다르게,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설교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서 청중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독특한 설교 이해는 부흥의 역사에 관한 그의 관심과 연구의 결과이다. 로이드 존스는 비상한(extraordinary) 성령의 역사의 기록들, 특히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강력한 설교 사역에 대한 그의 연구에 기반하여,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신만의 독특한 설교학을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로이드 존스는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Calvinistic Methodism)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설교의 비전을 발견하였다. 그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도 설교자들, 예를 들면 조지 헛필드,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롤랜드 등이 보여주었던 종류의 설교라고 믿었다.

그의 강연집 *Preaching and Preachers*의 다섯번째 장에서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로서 설교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열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열 가지 요소들은 설교자의 전인격(the whole personality), 권위와 통제 의식, 자유, 진중함, 생동감,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염려, 열렬함(warmth), 긴박감과 설득력, 파토스, 그리고 능력이다.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 이 열 가지 요소 중에서 능력의 요소야말로 그의 성령 세례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그는 위의 강연집의 맨 마지막 장(“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the Power”)을 할애해서 이 주제를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1) 사도적 방식의 설교: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

30)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96.

이 능력의 요소는 로이드 존스의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Apostolic preaching)란 진정한 설교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사도적 설교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묘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는 설교이다. 로이드 존스는 고전 2:4-5(“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과 살전 1:5(“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을 사도적 설교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들로 본다. 로이드 존스가 1967년에 토론토의 낙스장로교회에서 살전 1:5을 본문으로 설교한 “Not in Word Only”를 보면, 그가 이해하는 사도적 설교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도적 설교란 “메시지”(‘not in word only’)와 그 메시지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but also in power’)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³¹⁾ 여기서 메시지란 앞에서 살펴본 진정한 설교의 첫 번째 요소인 설교문과 다르지 않다. 사도적 설교의 메시지 역시 강해적이며, 교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살전 1:5에 따르면, 핵심적인 교리들(메시지)을 설교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메시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³²⁾ 이처럼 사도적 설교의 근간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 로이드 존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영향 아래 설교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channel)가 되어, 성령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성령으로의 세례는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설교의 방식이 진정한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일까? 로이드 존스는 사도 바울의 고전 2:4-5과 살전 1:5의 진술들은 “설교는 나(설교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다”라는 바울의 신학적이자 경험적인 고백이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즉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능력과 노력, 지식과 기술, 방식과 조직들은 결국 아무런 효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2)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설교행위,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 그리고 청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가 설교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31)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63.

32)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73.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로이드 존스는 구원(혹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확신의 경험과 설교의 능력부여의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속에는 이 두 경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성령 세례의 주된 결과가 신자들(설교자들을 포함)에게 온전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면,³³⁾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이처럼 로이드 존스의 사고 속에는 이 두 경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로이드 존스는 롬 5:5(“…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자의 심령 안에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다고 믿었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경우 뿐 아니라, 존 웨슬리, 조지 워필드, 하웰 해리스, 찰스 스펄전, 그리고 D. L. 무디와 같이 강력한 설교자들의 사례들을 들고 있다.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설교자들은 모두 중생 이후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비슷한 체험들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단지 지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이를 경험적으로 깊이 깨닫는 체험을 하였다. 이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체험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헌신으로 불붙게 했다고 로이드 존스는 말한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될 때, 그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차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열심으로 불붙게 된다고 말한다. 그의 강연 “Howell Harris and Revival”에서, 로이드 존스는 하웰 해리스의 성령 세례 체험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좋은 예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해리스의 성령 세례 체험이 그를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그는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다…이 경험의 결과로서, 그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슬픔과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 (성령 세례) 경험이야말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끌었던 것이다”³⁵⁾라고 말한다. 또 다른 강연에서 조지

33) Lloyd-Jones, *Joy Unspeakable*, 38.

34) Lloyd-Jones, *Joy Unspeakable*, 76.

35) Lloyd-Jones, *The Puritans*, 286-91.

윌필드의 강력한 설교 사역을 논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조지 윌필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향한 슬픔과 염려를 가져다 주며, 우리에게 열심을 품게 하며, 모든 계층과 종류의 사람들에게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³⁶⁾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로이드 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세례야말로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 설교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열심, 긍휼, 능력, 권위, 자유, 생동감, 열렬함, 긴박감, 파토스 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 설교 행위 가운데 성령 세례가 없다면, 비록 설교문 자체가 강해적 방식과 교리적 내용에 있어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설교를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로 정의하고 있는데, “논리(logic)”가 메시지(‘not in word only’)를 의미한다면, “불붙은(on fire)”은 설교자와 그의 설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능력(‘but also in power’)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가 청중들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로이드 존스는 생각했을까? 우선, 로이드 존스는 청중들 역시 성령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죄의 인식과 회심을 가져다 준다.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기를,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단지 청중의 생각과 이해를 밝혀줌으로써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진리들을 깊이 감각(sense)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1964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성령 세례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단지 간접적으로만 확신해 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것들을 비매개적으로(immediately)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신다”³⁷⁾라고 설교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기를,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게 되고, 이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 이전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분명한 감명(view)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³⁸⁾ 로이드 존스가 보기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진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깊은 인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등이다.³⁹⁾ 한 마디로,

36) Lloyd-Jones, *The Puritans*, 127.

37) Lloyd-Jones, *Joy Unspeakable*, 85.

38) Lloyd-Jones, *Revival*, 100.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메시지 자체로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경험하게끔 할 수 없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는 사도적 설교란 사도 바울이 살전 1:5과 고전 2:4-5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설교의 방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존 칼빈에게는 항상 조지 윗필드가 필요하다”⁴⁰⁾라고 제시했던 그의 중요한 명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명제에서 “존 칼빈”은 메시지(혹은 정통교리)를 의미한다면, “조지 윗필드”는 메시지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로이드 존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설교문(혹은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설교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성령 세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정통 교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통 교리만으로는 부흥을 가져올 수 없다”⁴²⁾고 말한 것처럼,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에 대해 말하면서도, 그의 주된 관심은 부흥이라는 주제에 있었다. 그가 이처럼 사도적 방식의 설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이것[사도적 방식의 설교]이야말로 모든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왔던 하나님의 방식”⁴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교회사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행전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⁴⁴⁾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once and for all)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 기원적 사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⁴⁵⁾ 그는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교회는 전에 발생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을 재발견하면서, 그 옛 수원(the ancient supply)을 발견하게 된다”⁴⁶⁾고 말하는데, 여기서 “옛 수원”이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찾기만 하면”⁴⁷⁾ 여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⁴⁸⁾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사도들이 행했던 강력한 설교 사역의 가능성이 여전히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에게 열려 있다고 확고히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 옛 수원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9) Lloyd-Jones, *Revival*, 101-2.

40) Lloyd-Jones, *The Puritans*, 126.

41) Lloyd-Jones, *The Puritans*, 126.

42) Lloyd-Jones, *The Puritans*, 126.

43)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75.

44) 이것은 로이드 존스 개인의 성경 해석임을 밝힌다.

45) Lloyd-Jones, *Revival*, 199.

46) Lloyd-Jones, *Revival*, 28.

47) Lloyd-Jones, *Revival*, 28.

48) Lloyd-Jones, *Revival*, 32.

4. 부흥 신학의 영향과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설교의 비전

서두에서 밝혔듯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교리의 한 축은 개혁주의 전통의 부흥 신학이다. 로이드 존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 성령 학파(Calvinistic Pneumatic School)의 20세기의 주요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진정한 설교(혹은 사도적 설교)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관한 그의 신념은 부흥에 대한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이해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로이드 존스가 갖고 있었던 설교와 부흥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설교자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17, 18세기의 청교도들과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와 저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칼빈주의 부흥 신학을 견지했던 청교도들은 부흥의 중요한 전조가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현상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그들의 설교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거룩한 열심, 긍휼, 담대함, 권위와 능력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면 개혁주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이나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 사역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열렬히 구하였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John Howe(1630-1705)는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기간에는 설교자들은 많은 분량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설교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영혼들은 확실히 전혀 다른 수준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⁴⁹⁾ 그는 또한 겔 39:29(“...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이 설교자들에게 임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긍휼과 감정으로, 더욱 더 진지하게, 더 큰 권위와 끌림(allurement)으로”⁵⁰⁾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Solomon Stoddard(1634-1729)는 이와 동일한 신념을 공유했던 청교도였다. 눅 4:18-19을 다루고 있는 그의 설교 “The Benefit of Gospel”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49) John Howe,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r, the Prosperous State of the Christian Interest Before the End of Time, By a Plentiful Effusion of the Holy Spiri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35), 77.

50) Howe, *The Prosperous State*, 77.

때때로 종교(기독교)는 퇴색의 길을 걷지만 이를 다시 부흥케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사람들 위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설교자들 위에 임한다면, 이것은 매우 희망에 찬 징조입니다.⁵¹⁾

스토다드는 위의 설교에서 “설교자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⁵²⁾ 첫째, 성령은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열심을 부여한다고 말한다.⁵³⁾ 설교자들 안에 있는 “거룩한 열심”(a holy zeal)은 그들의 마음을 불붙게 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⁵⁴⁾ 또한 이 거룩한 열심은 설교자들이 마땅히 설교해야 할 내용을 간과하거나, 혹은 너무 유약하게 설교하지 않도록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하게 채워준다.⁵⁵⁾

둘째, 설교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는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준다고 스토다드는 주장한다.⁵⁶⁾ 여기서 “이해와 지혜”란 사람들의 죄(iniquities)에 관한 것이다. 설교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설교가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도록 도와주며,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설교자들이 청중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청중들이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⁵⁷⁾고 말한다. 스토다드는 위의 설교를 “만약 성령이 설교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의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⁵⁸⁾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William Cooper(1694-1743) 역시 설교와 부흥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제 1차 대각성(the First Great Awakening)을 목격하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The Distinguishing*

51) Solomon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to Restrain Men from Sin*, (Boston: Thomas Fleet, 1713), 34-35.

52)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35.

53)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35.

54)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37.

55)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38.

56)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39.

57)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42.

58) Stoddard,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53.

*Marks*의 서문에서 이 대각성은 청교도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것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넘치도록 부여하신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그들은 비범한 열심과 근면함으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⁵⁹⁾고 쓰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개혁주의 교리들이었으며, 그들의 설교 방식은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고전 2:4),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았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았다”⁶⁰⁾고 기술한다. 쿠퍼는 설교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뜨겁게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수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증언한다.⁶¹⁾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도들(the Welsh Calvinistic Methodists)의 부흥에 대한 이해와 저술들 역시 로이드 존스에게 부흥과 설교 간의 긴밀한 관계 뿐 아니라, 평범한 설교자 위에 임하는 특별한 기름부으심,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설교사역이 청중에게 미치는 비상한 결과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었다. 예를 들어, William Williams of Swansea(1817-1900)는 자신의 책 *Welsh Calvinistic Methodism*에서 1779년, 1791년, 그리고 1818년에 웨일즈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부흥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흥의 시작은 설교자들 위에 홀연히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면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설교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감정,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교하게 되었다. 청중들 역시 설교자들의 설교 행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즉각적으로 느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워진 설교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처럼 로이드 존스가 갖고 있었던 설교와 부흥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는 설교자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은 17, 18세기의 청교도들과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와 저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물론 로이드 존스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설교의 과정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ng)과도 같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설교문과 설교 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설교자와 설교 행위 위에 임하는 성령의 비상한 역사에 더 많은

59) Jonathan Edwards, *The Great Awakening*,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Kenneth P. Minkema et a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2009), 4:218.

60) Edwards, *The Great Awakening*, in *Works*, 4:218.

61) Edwards, *The Great Awakening*, in *Works*, 4:218.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의 설교학의 독특성은 그의 설교학이 개혁주의 부흥 신학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의 부흥을 향한 열망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설교학이 성령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⁶²⁾ 그 성령론의 중심에는 부흥에 대한 그의 이해와 열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이드 존스는 진정한 설교(혹은 사도적 설교)의 이상적인 모델-“불붙은 신학”-을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설교가 아닌,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활동했던 조지 윗필드, 다니엘 롤랜드, 그리고 하웰 해리스와 같은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강력한 설교 사역의 역사에서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청교도 설교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항상 다소 양면적인”⁶³⁾ 태도를 취했다. 그는 청교도 설교의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강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⁶⁴⁾ 청교도들은 “본질적으로 교사들이며…설교자들이 아니다”⁶⁵⁾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17세기 청교도들이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⁶⁶⁾ 그들에게는 성령의 자유, 즉흥성(spontaneity), 그리고 감정의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⁶⁷⁾ 이와는 대조적으로, 18세기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설교는 개혁주의 교리(신학/빛/지성)와 성령의 능력(불/열/마음)의 조합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로이드 존스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합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도적 설교의 본질이며, 이러한 종류의 설교가 교회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드워즈에게서도 이와 같은 “이상적인 조합-위대한 교리들과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의 불”⁶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에드워즈는 비록 회중주의자(a Congregationalist)이지만 칼빈주의 감리교도로 불려져야 한다고 말한다.⁶⁹⁾

로이드 존스는 한편으로는 설교자들에게 “청교도의 설교 방식을 따라 복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일반적인 사역”⁷⁰⁾을 계속하라고 권면한다.

62)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xii.

63) John Coffey, “Lloyd-Jones and the Protestant Past,”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315.

64) 청교도 설교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높은 평가는 1977년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에서 했던 그의 강연 “Preaching”에 잘 드러난다(Lloyd-Jones, *The Puritans*, 372-89).

65) D. Martyn Lloyd-Jones, *Knowing the Times: Addresse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9), 269.

66) Lloyd-Jones, *The Puritans*, 350.

67) Lloyd-Jones, *The Puritans*, 13, 205.

68) Lloyd-Jones, *The Puritans*, 368.

69) Lloyd-Jones, *The Puritans*, 205.

70) Lloyd-Jones, *The Puritans*, 20.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또한 설교자들에게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의 설교 사역 위에 동일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는 “존 칼빈에게는 조지 윗필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명제처럼, 청교도의 방식을 따른 강해적이며 교리적인 설교 위에,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이 그들의 설교 사역 가운데 누렸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이러한 설교야말로 진정한 설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었다.

III. 나가는 글

성령 세례(혹은 부흥)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인식은 그의 평생의 영적 부담이었다. 1859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백 주년을 기념하며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했던 설교 “A Burden for Revival”에서 로이드 존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 속에 있던 시온의 회복에 대한 부담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시온의 (황폐한) 상태는 그[이사야]의 유일한 관심, 그의 삶의 열정, 그리고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일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심어주셨습니다…그는 그것[시온의 회복, 즉 부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숙고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놀랍게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⁷¹⁾

로이드 존스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처럼, 그의 설교 사역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교회에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영적 부담을 짊어지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부흥을 설교했으며, 청중들에게 부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권면했을 뿐 아니라, 부흥을 위해 열렬히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즉, 부흥이야말로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동력(energizing power)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⁷²⁾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았다. 특히 설교자들의

71) Lloyd-Jones, *Revival*, 257-58.

72) Iain H. Murray,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마음 속에 그들의 설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상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재하다는 사실에 그는 안타까워했다.⁷³⁾ 이처럼 설교자들이 그들의 설교 사역 가운데 임하는 비상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로이드 존스의 열망은 그의 성령 세례의 설교학적 함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유럽,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은 지속적인 숫자의 감소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의 축소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외형적인 숫자와 교회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성장의 문제이다. 지속적인 수의 감소는 부분적으로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경시가 가져온 설교의 변혁적(transformative) 능력의 감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교는 청교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식이다. 따라서 설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능력을 회복한다면, 설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대로 지속적인 회심과 영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신념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설교학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단지 지적(intellectual)이거나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경험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거룩,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경험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웨슬리, 윌펠드, 해리스, 스펄전 등과 같은 18,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그들의 죄의 용서를 단지 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는 성령의 심오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했다. 로이드 존스 자신도 이와 같은 성령의 심오한 체험들을 여러 차례 가졌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과거의 위대한 전도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구원의 온전한 확신 뿐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충만하게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설교 사역에 있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담대함, 자유, 권위,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열망해야 한다.

또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강조는 인간적 요인(a human agent)으로서 설교자는 설교 사역을 행하기에 근본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한다. 설교학자 Michael Knowles는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387.
 73) Murray, *The Fight of Faith*, 386.

설교자들은 자신들과 청중들이 갈망하는 영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들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제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하는 필연적인 필요(a corollary need)”를 확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⁴⁾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능력의 그 실재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면, 이것[설교사역]은 매우 압도적이며 고통스러운 일(a heart-breaking task)일 것이다”⁷⁵⁾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설교를 통해 청중의 영적 변화를 성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설교자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의 설교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부으심은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authenticate) 목적으로 설교자를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와 능력으로 입혀줌으로써, 설교자로 하여금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메시지의 진리를 확증하고,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부으심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⁷⁶⁾라고 설교했다.

결국, 설교자들에게 가장 긴급한 필요는 최신의 방법론이나 새로운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설교 사역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불”과 새 언약적 능력의 참된 원천인 “옛 수원”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이 옛 수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성령으로의 세례, 즉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새롭게,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쇠락해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필요에 대한 확신은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단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만족하지 말고, 설교 사역 가운데 비상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여전히 역설하고 있다.

74) Michael P. Knowles, *Of Seeds and the People of God: Preaching as Parable, Crucifixion, and Testimony*, (Eugene, OR: Cascade, 2015), 111.

75)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315.

76) Sargent, *The Sacred Anointing*, 276-77.

참고문헌

- Atherstone, Andrew, et al. "Lloyd-Jones and the Charismatic Controversy."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114-55.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 Barbee, David M. "The Allurer of the Soul: The Holy Spirit in Puritan Preaching." In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 Historical, Interdisciplinary, and Renewal Perspectives,* 111-2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 Beeke, Joel R. *The Quest for Full Assurance: The Legacy of Calvin and His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9.
- Bennett, Richard. *The Early Life of Howell Harri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2.
- Brauer, Jerald C. "The Nature of English Puritanism: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English Puritanism." *Church History* 23 (1954) 99-108.
- Bru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 Coffey, John. "Lloyd-Jones and the Protestant Past."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293-325.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 Crawford, Michael J.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Religion in America Se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Dallimore, Arnold A. *George Whitefield: The Life and Times of the Great Evangelist of the Eighteenth-Century Revival.*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0.
- Eaton, Michael A. *Baptism with the Spirit: The Teaching of Martyn Lloyd-Jon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89.
- Edwards, Jonatha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 Kenneth P. Minkema et al. 26 vol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2009.
- Finney, Charles G.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Cambridge: Harvard

- University Press, 2013.
- Harris, Howell. *A Brief Account of the Life of Howell Harris, Esq: Extracted from Papers Written by Himself. To Which Is Added a Concise Collection of His Letters from the Year 1738, to 1772.* Trevecka, UK: [s. n.], 1791.
- Haykin, Michael A. G. *Jonathan Edwards: The Holy Spirit in Revival.* Darlington, England: Evangelical, 2006.
- Howe, Joh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r, the Prosperous State of the Christian Interest Before the End of Time, By a Plentiful Effusion of the Holy Spiri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35.
- Jones, David Ceri, et al. *The Elect Methodists: Calvinistic Methodism in England and Wales, 1735-1811.*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2012.
- Kaiser Jr., Walter C.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as the Promise of the Father: A Reformed Perspective." In *Perspectives on Spirit Baptism: 5 Views*, edited by Chad Owen Brand, 15-46. Nashville: B & H, 2004.
- Kay, William K. "Martyn Lloyd-Jones's Influence on Pentecostalism and Neo-Pentecostalism in the UK."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22 (2013) 275-94.
- Knott, John Ray. *The Sword of the Spirit: Puritan Responses to the Bib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Knowles, Michael P. *Of Seeds and the People of God: Preaching as Parable, Crucifixion, and Testimony.* Eugene, OR: Cascade, 2015.
- Lawson, Steven J. *The Passionate Preaching of Martyn Lloyd-Jones.*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2016.
- Lloyd-Jones, David Martyn. *God the Holy Spirit.* Great Doctrines of the Bible 2. Wheaton, IL: Crossway, 2003.
- Lloyd-Jones, David Martyn.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 Wheaton, IL: Harold Shaw, 2000.
- Lloyd-Jones, David Martyn. *Knowing the Times: Addresses Delivered on Various Occasions 1942-1977.*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9.
- Lloyd-Jones, David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Ministry Resources Library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1972.
- Lloyd-Jones, David Martyn. *Prove All Things.* Eastbourne: Kingsway, 1985.

- Lloyd-Jones, David Martyn.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4.
- Lloyd-Jones, David Martyn. *Revival*. Wheaton, IL: Crossway, 1987.
- Masters, Peter. "Opening the Door to Charismatic Teaching." *The Sword and Trowel* 2 (1988) 24-35.
- McClymond, Michael J., and Gerald R. McDermott.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Murray, Iain H. *David Martyn Lloyd-Jones: The Fight of Faith, 193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9.
- Murray, Iain H. *Lloyd-Jones: Messenger of Grace*.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8.
- Murray, Iain H. *The Life of Martyn Lloyd-Jones 1899-1981*. Edinburgh: Banner of Truth, 2013.
- Nuttall, Geoffrey Fillingham. *Howel Harris, 1714-1773: The Last Enthusiast*.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1965.
- Owen, John. *A Memoir of The Rev. Daniel Rowlands*. London: R. B. Seeley and W. Burnside, 1840.
- Packer, James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IL: Crossway, 2010.
- Park, Wan-Chul. "The Integration of the Word and Experience in the Preaching of David Martyn Lloyd-Jone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24 (2006) 517-78.
- Perkins, William. *The Art of Prophecy*. 1592. Reprint, [s. n.]: Pavlik, 2012. Kindle edition.
- Randall, Ian M. "Lloyd-Jones and Revival." In *Engaging with Martyn Lloyd-Jones: The Life and Legacy of "the Doctor,"* edited by Andrew Atherstone and David Ceri Jones, 91-113.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2011.
- Sargent, Tony. *The Sacred Anointing: The Preaching of Dr. Martyn Lloyd-Jones*. Wheaton, IL: Crossway, 1994.
- Smart, Robert Davis. *Jonathan Edwards's Apologetic for the Great Awakening*.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2011.
- Stoddard, Solomon. *The Efficacy of the Fear of Hell to Restrain Men from Sin*. Boston: Thomas Fleet, 1713.
- Stott, John. *Baptism and Fullnes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Downers

- Grove, IL: InterVarsity, 2006.
- Sweeney, Douglas A. *Jonathan Edwards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9.
- Walton, Brad.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and the Puritan Analysis of True Piety, Spiritual Sensation and Heart Religion*. Lewiston, NY: Edwin Mellen, 2002.
- Wesley, John. *The Journal of John Wesley*, edited by Percy Livingston Parker. Chicago: Moody, 1974.
- White, Eryn M. "Revival and Renewal Amongst the Eighteenth-Century Welsh Methodists." In *Revival, Renewal, and the Holy Spirit*, edited by Dyfed Wyn Roberts, 1-12.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9.
- Williams, William. *Welsh Calvinistic Methodism: A Historical Sketch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Wales*. 2nd ed. London: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 1884.

